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극복하는 대안으로서의 인격의 시대

이경락 백석대 교수

1. 들어가는 글

철학자 강신주는 물질에 예속된 오늘날 자본주의 사회를 비판하면서 이성복의 시 <네 고통은 나뭇잎 하나 푸르게 하지 못한다>에서 다음의 시구를 인용하고 있다.

「입으로 먹고 향문으로 배설하는 것은 생리이며
결코 인간적이라 할 수 없다.

그에 반해 사랑은 향문으로 먹고
입으로 배설하는 방식이 숙달되는 것이다.」

철학자가 이성복 시인을 그의 인문학 강연에서 불러들인 것은 물질주의의 시대를 극복한 진정한 사랑의 구현은 결코 자연스런 욕구나 생리의 차원을 넘어서는 자기희생(자기허비)과 자기부정이 전제되어야 함을 역설적으로 표현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그런데 신약성경에는 이러한 자기희생과는 상반되는 듯한 상황이 소개되고 있다. 예수는 삼백 데나리온¹⁾이나 되는 값비싼 향유를 자신의 발에 부으며 머리털로 씻기던 한 여인이 ‘어찌 이 향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않고 허비하느냐’고 제자들에게 책망 당하자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요한복음 12장), 어찌하여 너희가 여인을 괴롭게 하느냐, 저가 있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나의 죽음을 준비하였으니 그가 하는 것을 가만히 두어라(마가복음 14장)” 라고 말씀하고 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예수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인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여인이 곧 맞이하게 될 자신의 육체적 죽음을 예비한 것은 물론이고 장차 하나님 나라가 전파되는 현장에서 이 가난한 여인의 행위가 함께 기념되고 증거될 것임을 예언하셨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강신주 철학자의 강론²⁾과 마가복음 14장에 나타난 예수의 물질관의 차이를 규명함으로써 물질소비(허비)

1) 한 데나리온(denarius)은 무게가 약 3.8g 나가는 로마시대의 은전으로 당시 노동자나 로마 병사의 하루 품삯에 해당되며, 신약시대 유대인들은 이 화폐로 로마제국에 세금을 납부하였다고 한다. 여인이 예수의 장사를 예비하기 위해 쏟아 부은 삼백 데나리온은 지금의 가치로 환산하더라도 노동자의 1년치 임금에 해당하는 상당한 금액이었음을 알 수 있다(라이프성경사전, 2006).

2) 플라톤아카데미, SBS CNBS, 인문학, 최고의 공부 ‘나는 누구인가’ 편에서 강신주 철학자는 “자본주의에 맞서라, 상처받지 않을 권리” 라는 주제로 한 강연에서 자본주의의 본질과 한계, 자본주의 사회의 대안으로서 인간중심적 공동체의 회복을

의 참된 의미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되새겨보려고 한다.

다른 동물들과 마찬가지로 유한한 생명체인 인간도 자신과 혈육의 생존과 번식에 필수적인 물질의 획득을 위한 활동을 해나가고 있는데 이는 생존과 종족번식을 위한 본능적인 행위라 할 것이다. 다만, 인간은 다른 동물들에 비해 고도의 언어적, 지적, 정신적 능력을 발휘함으로써 화폐를 통한 물물교환과 고도의 기술과 문명의 축적을 통해 효율적인 경제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해 나가고 있는데, 이를 자본주의 제도(사회)라고 말할 수 있다.

자본주의는 「사유재산에 바탕을 두고 이윤획득을 위해 상품의 생산과 소비가 이루어지는 경제체제」라는 사전적 정의가 가능한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자본주의 시대를 인격보다는 자본이 지배하는 사회(노승영, 2019) 즉, 돈과 물질에 의해 사람이 예속된 인격상실의 시대로 정의하기도 한다. 이러한 人格喪失의 문제는 인간사회에서만 나타나는 고유한 현상으로 예컨대, 개격 상실(犬格喪失)이라든지 소격 상실(牛格喪失)의 문제가 동물세계에서는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자본주의의 본질을 통찰하고(자본주의, 2013) 현대 자본주의 시스템이 지니고 있는 물질우위와 인격상실의 원인을 규명하고, 이를 극복한 참인격이 지배하고 다스리는 최종적 사회의 이상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2. 자본주의(물질)와 인격(본질)

인간의 존재이유와 본질을 물질(자본주의)와 관련하여 설파한 철학자의 강론은 많은 이들의 가슴을 시원하게 만들었다. 그는 위험(risk)과 안전(safety)이라는 상반된 상황을 통해 자본주의의 본질을 매우 직관적이면서도 쉽게 설명하였다. 즉, 자본주의의 구성원이 된 우리는 미래의 위험을 합리적인 수단과 방법을 통해 예측함으로써 안전한 삶을 보장받으려 하지만, 이러한 시도는 불가피하게 인간이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물질의 요구와 필요에 의해 종속되어 살아가는 노예의 삶을 살아가게 만든다는 논리를 전개한다. 또한 부모가 바라던 공학도의 안전한 삶을 포기하고 자신이 진정으로 꿈꾸고 소망하던 철학의 위험한 길을 선택한 경험과 대학시절 불확실한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친구를 위해 커피 한 잔도 사지 못한 웅색한 삶을 솔직하게 공개하였다. 그는 클래식 연주 감상이라는 예술의 향유조차도 물질의 소유에 종속되어 있는 현실을 통해 자본주의의 근본적인 한계를 지적하였다. 강연의 결론에서 철학자는 이성복의 시를 재차 인용하면서 진정한 사랑은 본능이나 자연스런 생리의 흐름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부모가 마지막 남아있는 밥 한 그릇을 배고픈 자식에게 주면서도 행복해하는 비효율과 전적인 허비이며, 물질에 종속되어 살아가는 자본주의를 극복하고 인간이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진정한 공동체 회복은 물질보다 서로간의 연대와 공감이라는 기본 덕목이라는 진정한 의식전환에서 시작된다고 강조하였다.

제시하고 있다(2014. 3)

철학자 강신주 박사의 이 강연은 자본주의를 전공한 교수들이 들어봐도 손색없는 명강의였지만, 본질적인 문제 - 즉, 왜 이러한 사회가 도래되었는지에 관한 원인규명 - 에 관해서는 뭔가 부족하다는 느낌을 받지 않을 수 없었다. 연구자들이 그 원인을 성경 창세기를 통해 명백하게 밝히지 않으면 여전히 '공감과 연대 그리고 인간이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공동체의 구현'은 실체가 없는 모호한 결론으로 끝나고 말 것이다. 유사 이래로 수많은 성현들이 인간과 인간사회의 문제점을 밝혀내고 그 대책을 제시하였지만 세상은 점점 물질이 지배하는 인격상실의 시대가 확대되고 있음을 부인할 사람들은 많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성경 창세기에서는 이 인격상실의 문제를 어떻게 계시하고 있는가? 먼저 이 문제를 다루려면 먼저 인격에 대한 올바른 정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네이버 국어사전의 정의에 따르면 人格은 「사람으로서의 품격」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사람의 품격은 다른 동물들에게는 부여되지 않은 사람만의 고유한 격(格)이라고 하겠다. 여기서 격(格)에 관한 사전적 정의를 더 살펴보면, 「주위 환경이나 형편에 자연스럽게 어울리는 분수나 품위」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렇다면 사람의 격에 관한 사전적 정의가 아닌 성경 창세기 1장 26절 말씀에 나타난 사람의 격에 관한 계시를 살펴보도록 하자.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창세기 1장 26절)

천지창조의 열매인 사람의 창조에 관한 이 말씀을 보면 사람의 용도와 목적 그리고 존재이유에 관한 창조주의 생각과 마음을 알게 된다. 창세기 1장의 말씀을 보면 사람보다 모든 면(지적 능력, 예술적 능력, 감성적 능력, 기술적 능력, 언어적 능력 등)에서 열등한 것으로 보여 지는 동물이나 식물들에게조차도 창조주는 적절한 생명을 부여하고 그 격에 알맞게 살아가도록 했음을 알 수 있다. 즉, 사람만이 아니라 만물에는 다 격(格)이 주어져 있는데, 이 격은 만물이 주변 환경이나 형편에 자연스럽게 어울리는 분수나 품격으로서 창조주가 피조물들에게 부여한 위치(지위)로 정의될 수 있다. 다양한 토론과 상고함을 통해 연구자들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추론을 이끌어낼 수 있었다.

첫째, 사람은 창조주의 형상과 모양으로 피조된 존재로서 다른 동물들에게는 없는 격이 부여되어 있는데 이 격이 바로 영이신 하나님을 형상화하는 격, 즉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인격인 것이다.

둘째, 사람에게만 이 인격(하나님의 형상)을 부여하신 목적은 하나님을 대신하여 만물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대리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그런데, 사람은 스스로 하나님같이 되려는 사탄의 유혹을 받아 이 거룩한(구별된) 본래의 위임을 잃어버리자 그 즉시 만물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고유한 지위를 상실하게 된 것이다. 오늘날 인류가 자본주의라는 환경에 지배되어 물질문명에 종속된 삶을 살아가게 된 근본원인도 바로 인격이라는 자신의 분수를 넘어 신격이 되려고 시도하다가 인격(하나님이 창조한 인간존재의 근본가치)을 유린당

했기 때문이다.

셋째, 그러므로 철학자가 주창한 연대와 공감 그리고 사람이 가장 중요시되는 공동체의 회복이 가능해지려면 인격의 회복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좋은 집을 지으려면 먼저 그 집을 지을 수 있는 합당한 재료가 준비되어야 하는 이치라 하겠다. 집을 지으려는 사람이 건축재료로 나무만 잔뜩 준비해 두었다면 100층 짜리 고층건물을 만들려는 생각은 사상누각에 불과한 것이다. 이상사회를 꿈꾸어왔던 많은 사상가들, 정치가들, 경제관료들, 성현들이 간과하고 있는 인격상실이라는 이 진실을 성경은 밝히고 있는 것이다(완역해설 논어, 2019). 전 세계 수많은 젊은이들을 열광시키며 부조리한 자본주의를 청산하고자 시도되었던 공산주의가 100년을 채 넘기지 못하고 붕괴된 것은 공산주의 이념이나 사상의 모순 때문이 아니라 공산주의 사회를 실현할 수 있는 공산주의적 인간(인격)이 없었기 때문이었다(이경락, 2017).

넷째, 그렇다면 이 인격의 회복은 무엇으로 가능하며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가 핵심과제가 될 것이다. 하나님이 창조한 원형의 인간, 창조주가 보시기에 심히 좋아하신 그 인격을 구약시대 사람들도 부분적으로 경험했지만³⁾ 예수의 12제자들과 예수를 따랐던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은 이 원형의 사람을 만난 최초의 사람들이었다. 이 인격(하나님의 형상)을 예수에게서 경험한 이들은 그를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리스도로, 새생명의 주로, 부활하신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따랐던 것이다. 예수를 진정으로 영접하고 받아들인 많은 이들은 그들의 신분과 형편과 상관없이 예수의 생명으로 거듭나 부활생명을 전파하는 사람들이 되었다. 그 결과 이 땅에는 교회라는 새생명의 연합체가 나타나 하나님의 형상을 단체적으로 표현하고 있으며, 현재적 하나님 나라인 교회는 장차 새예루살렘성으로 완성될 것이다.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를 창조 때부터 방해해왔던 사탄의 세력은 영원한 심판을 받고 무저갱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것이 성경에 계시된 인류역사의 큰 흐름이며,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류의 정해진 길인 것이다.

그러므로 철학자가 제시한 이상적 공동체가 실현되려면, 창조주가 인간에게 부여했던 인격 즉, 원형의 인간회복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 인격회복은 어떠한 인간의 노력, 사상, 철학으로도 불가능하며, 오직 예수의 새생명으로 재창조되는 길 외에는 다른 길은 없다. 이 하나님의 재창조의 역사는 아담의 타락(인격상실) 이후에 바로 시행되었다. 그러므로 인류역사는 이 하나님의 경륜을 방해하는 사탄과 그를 따르는 무리들과의 싸움이다. 이 싸움의 선봉장이 바로 예수자신이며 그를 따르는 군대가 바로 그의 생명으로 거듭난 교회인 것이다. 그러므로 인격을 물질에 종속되도록 타락시킨 사탄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지 못하면 아무리 많은 물질을 소유하더라도 인생

3) 구약성경을 보면 아담의 타락이후로 하나님은 셋,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요셉을 포함한 12아들), 모세, 이스라엘 공동체, 선지자, 제사장, 왕(다윗 왕을 포함한 많은 왕들)에게 자신을 위임하는 기름을 붓고 새생명과 하나님 나라의 경륜을 수행해오셨다. 그러나 이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나타나기는 했지만 부분적이었으며, 사탄의 계락을 전적으로 물리치고 완전한 인격의 승리를 확보하지는 못하였다. 마치 감나무에 열린 홍시가 감의 열매이듯이 예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완전한 열매로 이 땅에 오셨다. 구약의 선지자 등은 완전한 열매가 열리기 전의 단계인 감의 잎, 가지, 감꽃, 덜익은 감의 상태로 비유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만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하나님 경륜에 완전히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이며, 이것이 바울과 사도들이 자신들의 전 인생을 드려 전파한 신약경륜인 것이다.

은 허망한데 놓이게 된다. 뿐만 아니라 상실된 인격의 지배하에 놓여있는 만물들(특히 물질)도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허무한데 종속되어 자신의 격을 되찾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피조물들도 회복된 인격으로 자신들을 다스리고 통치해줄 하나님 아들이 나타나기만을 고대하고 있는 것이다(로마서 8장).

다섯째, 하나님은 사람에게만 자신을 대리하는 대리자로서의 영광스러운 위임(하나님의 형상, 그 분의 아들, 신부, 기름부음, 동역자, 인격 등)을 부여하였다. 만물들은 단지 하나님의 존재하심과 살아계심을 부분적으로 나타낼 뿐 그 분의 영광스러움과 아름다움을 인격으로 표현하지는 못한다. 비유하자면, 어떤 사람의 집에 가보면 그 사람이 사용하는 물건들을 통해서도 집주인의 어떠함을 느낄 수는 있지만, 이 물건들이 아무리 멋지고 훌륭해도 집주인을 생명을 살아내는 아들이 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아들이야 말로 그 집 주인의 완전한 형상이라 할 것이다. 형상이 없으신 하나님의 가장 큰 갈망은 자신을 형상화하는 것이며 이를 위한 가장 온전한 피조물이 바로 사람인 것이다. 사람의 존재이유와 목적이 바로 그를 인격으로 형상화하는 것이다. 따라서 인격회복은 인간이 물질의 종속에서 해방되는 차원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경륜의 승패를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문제인 것이다. 그러므로 인격회복을 비로소 가능하게 하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이미 저주를 받은 것이라는 것이다. 이 말씀은 사람의 위치와 역할(인격)이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간절한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한 것인지 ‘내 말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다 저주를 받는다’ 는 의미가 아닌 것이다. 부연하면, 만약 사람이 사람으로서의 위치를 버리고 동물처럼 살아가겠다고 한다면 그 사람에게는 더 이상 사람의 존귀함과 품격 그리고 하나님을 대신하는 영광스러운 역할을 수행할 수 없다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요한복음 3장 36절에서는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그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가 그 사람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 요한일서 5장 12절에서는 “그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

여섯째, 사람에게에는 만물 중에서 가장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격인 인격이 부여된 반면, 다른 만물들에게는 창조의 경륜을 따라 각기 적절한 격인 부여되어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셨다. 그러나 사람은 만물 중에서 유일하게 인격을 버리고 신격을 추구한 결과 하나님의 영광을 금수와 버리지 형상으로 바꾸어 결국 이들에게 굴복하는 존재가 되고 만 것이다. 사람의 격이 아무리 높게 창조되었더라도 그 격을 지키지 못하면 만물보다 더욱 못한 존재로 전락하게 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사람의 격은 창조된 것이므로 스스로 만들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만일 사람이 스스로 노력과 수행, 부단한 자기절제를 통해 고상한 인격으로 주변에서 존경을 받게 된다면 이것도 좋은 일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경해법인, 2004). 이러한 놀랍고 고상한 경지에 오를 사람이 없지는 않을 것이지만 과연 인류 중에서 몇 명이 이 안에 포함될 수 있을 것인지를 생각해 보면,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길은 창조주(아버지)가 그의 아들인 인생에게 오라고 열어 놓으신 길은 아닌 것 같다(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을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 따라서 연구자들은 이 수행의 길은 만인이 구속되고 포함될 수 있는 길,

즉 복음의 길은 아님을 더욱 깊이 인식하게 되었다. 사람이 인격을 통해 하나님을 형상화함으로써 그를 영화롭게 하지 못한다면 인생으로 지어진 것에 대한 진정한 감사와 찬송은 흘러나오지는 않게 될 것이다.⁴⁾ 왜냐하면, 인격이 없는 인생의 열매는 “온갖 부귀영화를 누렸건만 인생이 헛되고 헛되구나(솔로몬), 生老病死苦, 空手來空手去(불교)” 이기 때문이다.

일곱 째, 만물에게 주어진 고유한 격을 인간이 침해하거나 결코 대신해서 누릴 수는 없다는 것이다. 새에게 주어진 격인 鳥格은 창조주가 새에게만 부여한 고유한 격인데, 아무리 인간의 격이 새보다 높게 창조되었다 하더라도 그 격은 새에게만 주어진 축복이며 다른 어떠한 만물도 이 격을 빼앗아서 자신의 격으로 소유하지못한다는 것이다. 자신의 격을 유린당한 사람과는 달리 피조된 만물을 살펴보면 각자에게 주어진 격(분수, 품위)을 이탈하지 않고 적절하게 환경을 이용하기도 하고 순응하기도 하면서 생존해 나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인간을 제외한 만물은 창조주의 의지에 의해 부여된 격에 알맞게 물질세계를 활용함으로써 생존과 번식활동을 지혜롭게 해 나가고 있음을 성경도 증거하고 있다(잠언 6장 6절 이하에서는 “개으른 자여 개미에게로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간역자도 없고 주권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욥기 39장 27절 이하에서는 “독수리가 공중에 떠서 높은 곳에 보금자리를 만드는 것이 어찌 네 명령을 의지함이나, 그것이 낭떠러지에 집을 지으며 뾰족한 바위 끝이나 험준한데 거하며 거기서 움킬만한 것을 살피나니 그 눈이 멀리 봄이며, 시체들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며 그 새끼들도 거기서 피를 빨아 먹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

그러므로 사람에게 있어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는 인격의 회복이며, 이 인격회복은 사람의 격으로 내려오신 예수를 통하지 않고서는 결코 이루어지지 않는다. 즉, 사람에게 주어진 축복은 사람 스스로가 되찾아 와야 하는 것이다. 인격회복은 인간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과제이며, 이것이 우리의 살아가는 이유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인격이 없는 인생은 살아있으나 죽은 것이다. 인격회복의 주, 새생명의 주로 오신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3. 물질은 어디에 허비되어야 하는가?

인간이나 동물은 모두 유한한 육체적 생명으로 생노병사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는 점에서 동일한 생의 노정을 지나도록 지어졌다. 따라서 육체적 생명이 소멸하는 단계에 이르기 전, 즉 살아서 활동하는 동안에는 육체의 생존과 유지를 위해 활동을 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에서 유사한 특성을 지니고 있다. 인간 측면에서 이루어지는 생존을 위한 활동들을 총칭하여 경제활동 내지는 경제행위라고 부르고 있다. 인간은 다른 동물과는 다른 신체적 특성(예: 고도로 발달된 뇌구조, 신경구조,

4) 시편 8편 4절 이하를 보면 하나님께 인생의 자리에서 드리는 존재적인 찬양과 감사가 다음과 같이 아름답게 표현되고 있다. “사람이 무엇이관대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관대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까” 사람이란면 누구라도 이러한 감사와 찬양을 창조주에게 드릴 수 있도록 창조되었다. 이 인생의 위치가 바로 하나님이 인생에게만 부여하신 인격의 자리인 것이다.

세분화된 근육구조 등을 통해 치밀하고 세밀한 동작이나 활동이 가능) 이외에도 탁월한 지적, 정신적, 언어적 능력을 부여받았는데 이를 통해 자본주의 경제시스템(주식회사, 자본시장, 법인의 창안, 분배와 성장정책, 금융시스템, 환율 등의 거시경제정책 등)을 고안하여 경제활동을 최적화·효율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동물들과는 차별화되고 있다 하겠다(배종석 외, 2006).

그러면 여기서 물질의 가치는 미래를 위한 대비가 아닌 현재적 허비(사용)에 있다는 강 신주철학자의 주장을 다시 논의해 보자. 그는 오늘날 자본주의 사회의 구성원들은 경제시스템의 원리를 활용하여 최대한 많은 물질을 확보하기 위해 현재의 삶을 미래로 연기시켜 놓은 채 살아가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불안한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 물질사용을 유보시키지 않고 현재 꼭 필요한 대상과 장소에 허비할 때만 사람을 물질보다 소중하게 여기고 사랑하게 됨을 역설하였다. 그런데 철학자와 동일한 주장을 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는 전혀 다른 말씀을 하고 있다. 값비싼 향유를 예수의 발에 부어 허비하는 한 여인을 향해 ‘그 향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주면 더 낫지 않겠는가’ 라고 책망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는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너희가 도울 수 있지 아니하냐, 그렇지만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고 얼마 후에 죽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여인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한 것이다, 더 이상 여인을 괴롭게 하지마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 이 말씀을 보면 자신이 가진 가장 값진 것(물질, 향유)으로 예수의 죽음을 기념한 이 여인의 가난한 마음을 주님은 깊이 받으셨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예수는 이어지는 다음의 말씀을 통해 여인의 이 표면적 행위가 가지는 본질적인 의미를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계신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인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4. 연구의 결론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인가? 그는 영광을 받으러 오신 분이 아니라 세상을 사탄의 권세에서 구원하기 위해 자신의 육체를 제물로 드린 분이시다.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면서부터 십자가의 죽으심에 이르는 예수의 전 생애는 사탄의 유혹으로 인해 상실된 인격을 되찾아 하나님께 돌려드리기 위한 일생이었다. 사탄의 일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할 인격의 위치(지위)를 이탈시키는 것이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 나타나신 것은 이 사탄의 일을 멸하고 사람에게 인격의 지위를 회복시키기 위함이다(요한일서 3장 8절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 그러므로 예수가 이 여인의 행위를 깊이 받으신 것은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라, 하나님 아들(예수)로 인해 잃어버린 인격을 회복한 여인의 넘치는 감사를 흠향하신 것이다. 제자들은 아들의 복음이 전파되어 인격이 회복된 가난한 여인이 자신의 전부라 할 수 있는 값비싼 향유를 예수의 발에 쏟아 부은 행동을 표면적으로만 이해하였다. 그러나 예수는 여인의 가난한 마음(여인의 전 존재)을 전적으로 받으셨을 뿐만 아니라, 이후라도 세상 어디든지 인격회복을 성취하는 복음전파가 이루어지는 곳에서는 이 여인이 자신의 전부를 드린 것과 같은 일이 재현되어 나타날 것을 계시한 것이다.

이 가난한 여인은 값비싼 향유를 어디에 허비했는가? 가장 소중한 일, 자신의 인격을 되찾아준 분에게 쏟아부은 것이다. 인생이 왜 밋밋하고 허무하고 우울한가? 참으로 드러질 곳, 허비되고 불태워질 곳을 찾지 못하면 인생은 허망해진다. 이 여인은 일설에 의하면 창녀로써 수많은 남성들의 성적 노리개로 살아갈 수 밖에 없었던 자로 소개되고 있는데, 유대 전통에 따르면 여인들이 옥합을 깨는 때는, 신랑을 맞이하여 자신의 전부를 드리는 첫날밤이라고 한다. 예수를 만나기 전까지 창녀로서의 비참한 삶을 살아온 이 여인은 어느 남성에게도 자신을 진정으로 허비할 수 없었던 가련한 여인이었다. 이 여인이 바로 누구인가? 사탄에게 유린되어 인격을 상실하고 세상의 이리 저리한 것들(명예, 돈, 자존심, 즐거움, 쾌락, 희생, 봉사, 정직함, 정의로움, 결혼, 고통, 피해의식, 우울감, 열등감, 판단, 정죄 등)로 인생의 허무를 채우려 했던 방향하던 우리 자신이 아니던가?

진정 참인격의 주인이시며 새생명의 주이신 예수를 만난 사람들에게서는 이 여인처럼 자신의 옥합을 깨는 사건이 세상 끝날까지 재현될 것이다. 우리의 물질은 인간의 욕망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용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참인격을 회복하는 일에 허비되고 사용될 때 가장 값진 것이 된다. 회복된 인생으로 말미암아 물질이 허망한데 사용되지 않고 복음전파를 위한 고귀한 용도에 사용될 때 하나님의 영광에 함께 동참하게 된다.⁵⁾ 인생은 예수를 통해 참인격을 회복하게 되었을 때 비로소 물질과 환경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창세기 1장 26절에 계시된 창조의 목적에 이르게 될 것이다. 창조의 목적을 성취시켜 드리기 위해 자신의 전부(물질, 시간, 능력 등 전존재)를 허비하는 것이 인생 최대의 영광이고 축복인 것이다.

참고문헌

- 그리스도인의 기업이해, 기업이란 무엇인가, 배종석 외, 예영커뮤니케이션, 2006.
 네이버국어사전
 라이프성경사전, 2006
 신고는 원광이 되어(경해법인 회고록), 경해법인, 여백미디어, 2004.
 신구약성경(어린이 성경, 개역한글).
 신앙의 관점에서 바라본 경제경영, 이경락, 울곡출판사, 2017.
 완역해설 논어, 역저자 장기근, 명문당, 2019.
 자본가의 탄생, 스타인메츠 지음, 노승영 옮김, 부키, 2019.
 자본주의, EBS 자본주의 제작팀, 가나출판사, 2013.
 플라톤아카데미, SBS CNBS, 인문학, 최고의 공부 '나는 누구인가' 편, 강신주 특강, "자본주의에 맞서라, 상처받지 않을 권리", 2014.

5) 로마서 8장 19절 이하에서는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하는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